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정경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22장 '성경의 정경', 약 229~237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들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신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느 책들인가를 묻는다. 그는 정경의 역사가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역사 연구만으로는 확실한 답에 이를 수 없다고 보고, 성경 자체가 주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백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신다. 구약 때는 성막과 성전에,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 두셨다. 교회가 이 책들을 알아본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초자연적 확신 때문이다. 교회의 공표나 사도성 같은 기준 덕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이므로, 정경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더 보태지 않으시는 의미에서 닫혔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8개 절로 나누었다.)

📜 1. 정경이라는 질문, 왜 어려워 보이나

프레임은 앞 장의 논리를 이어받는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면, 그 말씀은 어느 책에 있는가? 이것이 '정경'의 문제다. 정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려고 주신 책들의 묶음을 말한다. 이 질문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종교개혁 이후 로마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약 목록을 두고 다투어 왔다. 둘째, 처음 4세기 동안 교회와 시대마다 신약 목록이 조금씩 달랐다. 셋째

초기의 일부 목록에서는 빠졌다. 그래도 프레임은 이레니우스(202년 무렵 사망)를 예로 든다. 그는 『이단에 반대하여』에서 빌레몬서, 베드로후서, 요한삼서, 유다서를 뺀 거의 모든 신약 책을 권위 있는 본문으로 인용했다. 이단 마르시온 때문에 정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의 목록은 오늘의 정경과 아주 가깝다. 최근 도마복음·유다복음이 출간되자, 이 책들이 교회 정치에 밀려난 정당한 분파의 목소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프레임은 이 책들이 교회가 옳게 정죄한 영지주의 계열이라는 쪽에 선다. 영지주의는 비밀 지식을 통한 구원을 말하며 물질세계를 낮게 보는 고대 이단 사상이다.

1. 정경 = 교회를 다스리라고 주신 책 묶음
2. 구약 목록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논쟁 중
3. 초기 4세기 신약 목록은 지역마다 차이
4. 이레니우스의 목록이 이미 지금과 매우 가까움
5. 도마·유다복음은 영지주의 이단 쪽이라 봄

> —
>
> 이 절은 역사적 상황 설명이며 저자가 인용한 구절은 없음

📜 2. 방법: 역사 연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서

프레임은 이 책이 역사서가 아니라 조직신학 책이라고 밝힌다. 역사를 조사해서 정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구성하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다. 거기서 정경 목록을 귀납적으로, 곧 자료를 모아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밝히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런 연구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 주고, 신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적 연구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책들을 '확실하게' 찾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정경성에 대해 성경 스스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겠다고 한다. 성경 안에 “이 책들이 정경이다”라는 목록은 없다. 성경이 쓰이는 동안에는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대신 방향을 잡아 주는 성경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다.

1. 이 장은 역사 재구성이 아니라 신학적 접근

3. 성경 안에 정경 목록은 없다
4. 대신 방향을 주는 성경의 원칙은 있다

> —
> 방법론을 밝히는 절로 저자가 인용한 구절은 없음

📜 3. 구약 정경: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하고 구별하신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보다 권위 있는 '인격적 말씀'을 주시려 한다. 인격적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뜻을 밝히고, 함께하시는 소통이라는 프레임의 핵심 개념이다. 이런 최고 권위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볼 수 있는 책 묶음, 곧 정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이 말씀은 한순간의 개인 경험으로 사라지면 안 된다. 다음 세대의 죄까지 꾸짖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언약궤 곁에 두시고, 다른 말씀을 그 곁에 더하셨다. 첫 정경은 두 돌판, 다음은 모세의 율법, 그다음은 여호수아의 말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단계마다 최고 권위로 말하는 분명한 책 묶음이 있었다. 구약 저자들은 앞 책을 인용하고 그 주제를 이어받으며 서로의 글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반대자들이 많은 점에서 부딪혔지만, 어떤 본문을 권위 있게 인용할 수 있는지에는 완전히 동의했다. 프레임은 이 증거를 근거로 당시 유대인의 구약 정경이 개신교 구약과 같다고 판단한다. 또 그는 요세푸스를 인용한다.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데, 번역본에는 '교회사가'로 잘못 적혀 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 성전에 보관된 책들이 유대인이 인정한 정경이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리에 그 말씀을 두셨다.

1. 최고 권위의 말씀은 사람 말과 구별돼야 함
2. 그러니 정경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3. 돌판 → 모세 율법 → 여호수아로 단계적 추가
4. 예수님과 유대인은 권위 본문에 동의했다
5. 당시 유대 구약 = 개신교 구약(프레임 판단)

말씀을 기록해 보존하는 이유: 후대의 죄를 증언하게 하심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신명기 31:24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정경에 더해진 장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수아 24:25-28

여호수아의 말이 율법책에 더해진 세 번째 단계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예레미야 26:18

미가의 예언을 인용함: 구약 저자가 앞 책을 알고 있었다는 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 **미가 3:12**
>
> 예레미야 26:18이 인용한 원래 본문
>
>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 4. 신약 정경: 말씀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신약은 겉보기에 더 어렵다. 성경 저자 누구도 신약을 '완성된 묶음'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저자들은 세대마다 물려주고 지켜야 할 '전통'을 말했다. 또 옛 언약에 기록된 계시가 있었듯 새 언약에도 기록된 계시가 있다(21장).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복음에 다가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찾을 수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프레임은 오늘날 정경 연구 상당수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빼놓는다고 비판한다. 그 연구들은 '자율적 추론'으로 책의 자격을 따지는데, 자율적 추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 이성만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다(3장). 그 결과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대신 그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자고 한다. 전제란 논증 이전에 깔고 들어가는 기본 확신이다.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이 백성을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말씀을 손 닿는 곳에 주신다는 것이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신약 27권을 당신의 성전인 교회, 곧 백성 가운데 두셨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인격 같은 교리로는 크게 다투었다. 하지만 정경으로는 거의 다투지 않았다. 차이는 주로 책이 지역마다 늦게 전해진 탓이거나 저자와 내용에 대한 견해 때문이었다.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자기 교회의 목록을 발표했을 때도 잡음이 없었다. 그 뒤로 동방정교회, 로마가톨릭, 개신교는 신약 목록에서 일치해 왔다. 오히려 구약보다 더 일치했다.

1. 신약은 '완성된 묶음' 언급이 불가능했다
2. 자율적 추론으로는 불확실한 결론뿐

4. 성전 대신 교회(하나님의 성전)에 두셨다
5. 367년 이후 모든 전통이 신약 27권에 일치

요한복음 6:68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음: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어야 구원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린도전서 3:16-17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놓일 새 자리

>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2:21

교회가 주 안에서 자라 가는 성전

>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요한계시록 3:12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성전 = 하나님의 백성

>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신명기 30:11-14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 절 전체의 결론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 5. 어떻게 알아보았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토록 일치하게 되었는가? 프레임의 답은 예수님의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본문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의 신적 성격을 알아보았다. 조명은 성령이 마음을 밝혀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14장의 질문, 곧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답과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당신의 것임도 함께 확신시키신다. 그러니 확신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진다. 15장에서 참 선지자를 가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신명기 18장에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예언과 역사 사건의 관계가 얽혀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 그래서 궁극적 확신은 역시 초자연적이다. 프레임은 정경 문제도 똑같다고 본다.

1. 교회의 일치 =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들음
2. 성령이 본문을 조명해 신적 성격을 알게 함
3.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출처도 확신시키심
4. 선지자 식별처럼 최종 확신은 초자연적

요한복음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교회가 정경을 알아본 방식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신명기 18장(특히 18:21-22)

참 선지자를 가리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나 적용은 어렵다는 예

신명기 18장 [1]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5]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6]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

“주님의 양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 6. 교회가 쓴 기준들과 그 한계

프레임은 교회가 객관적 기준을 썼다는 점도 인정한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사도성'이다. 사도가 쓴 책, 또는 사도에게서 나온 책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교회를 진리로 이끄셨다. 그래서 사도가 썼다고 믿어지면 교회는 더 따지지 않고 받았다. 사도가 쓰지 않은 책도 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가 그렇다. 이 책들은 사도 곁에 있던 사람이 썼고 사도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마가는 베드로의 가까운 동료로 여겨졌다. 누가는 바울이 직접 동료라고 밝히며, 사도행전의 '우리' 대목이 그의 동행을 보여 준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글로 여겨졌지만 오늘 학자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야고보와 유다는 아마 예수님의 친형제로 지도자였으나 엄밀한 의미의 사도는 아니다. 1~2세기 신자들은 우리보다 그 시대에 가까워 더 많이 알았을 것이다. 그래도 역사 증거만으로는 '개연적', 곧 그럴 법하다는 수준의 논증일 뿐이다. 사도들이 27권을 공식 보증했다고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오래되었는가, 예배에서 공적으로 읽혔는가, 내용이 정통인가 같은 다른 기준도 정경을 증명하거나 다른 책을 반증하기엔 부족하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루터의 예를 든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정경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교회 전체는 루터와 달리 판단했다. 야고보도 바울처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적 원칙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쓸 때만 타당하다. 그것도 개인 혼자가 아니라

1. 가장 분명한 기준은 사도성
2. 사도 아닌 저자는 사도 측근으로 여겨짐
3. 역사 증거만으로는 '그럴 법함'에 그침
4. 오래됨·예배 사용·정통성도 증명엔 부족
5. 루터의 야고보서 의심: 개인 교리 잣대의 위험

골로새서 4:14

바울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로 소개: 바울의 동료임

>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동행 증언

>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24

바울이 누가를 동역자로 언급(번역본의 '빌 1:24'는 빌레몬서의 오기로 보임)

>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행전 16:10-17

'우리' 대목: 누가가 바울과 동행한 증거(번역본 표기 16:10-24)

>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

사도행전 20:5-21:18

'우리' 대목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

사도행전 27:1-28:16

'우리' 대목: 로마행 항해 동행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야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

갈라디아서 5:6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와 바울의 칭의론이 맞닿는 지점(각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 7. 교회가 정경을 만드는가, 정경이 교회를 세우는가

프레임은 교회의 증언만으로, 또는 한 교단의 판단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한다. 로마가톨릭은 정경의 권위가 교회의 공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 왔다. 프레임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367년 이후 정경에 대한 교회의 일치된 확신은 교황이나 공의회의 성명보다 앞선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하신다. 그러므로 권위의 방향은 반대다. 교회가 정경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함께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을 글로 증언하시려 했다. 사도들은 말뿐 아니라 글로도 말씀을 전할 책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실패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증거와 함께 스스로를 증명한다. 이것이 '자증'이다. 성경이 자기보다 높은 권위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한 신약 27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1. 교회 공표가 정경 권위를 만들지 않는다
2. 367년 이후의 일치가 교황·공의회보다 앞섬
3. 하나님은 교회 아닌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심
4. 성경은 성령의 증거와 함께 스스로 증명
5. 27권은 오늘의 인격적 말씀이라 확신 가능

> —
> 앞 장들의 결론(하나님은 책으로 다스리심)에 기대며 이 절에서 새로 인용한 구절은 없음

“정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정경의 권위에 의존한다.”

📜 8. 정경은 닫혔는가

어떤 의미에서 정경은 늘 닫혀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자기 전통을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꾸짖으셨다.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은 각 시대에 신실하게 살기에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정경에 더하셨다. 십계명에 신명기의 계시를,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을, 율법에 선지서와 성문서를, 구약에 신약을 더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사람에게는 금지된 일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필요가 생길 때 계시를 더하신다. 아담이 받은 계시로는 홍수를 준비해야 하는 노아에게 부족했다. 노아의 계시로는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하기에 부족했다. 구약은 신자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한 도움을 주었지만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 구속, 부활, 승천, 오순절로 '구속사'가 분수령에 이르렀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 큰 흐름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사역은 최종적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최종적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한다.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이들이 이미 확증했다고도 말한다. 구속 사역이 최종적이니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도 최종적이다. 책을 더하는 것은 완성된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정경은 사람도, 하나님 자신도 더하지 않으신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닫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소통이 멈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일반계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다. 일반계시는 자연과 역사,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다.

1. 사람은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2. 하나님 자신은 필요에 따라 계시를 더하셨다
3. 그리스도 사역의 최종성 = 말씀의 최종성
4. 이제 하나님도 책을 더하지 않으신다
5.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으로 매일 말씀하신다

> **신명기 4:2**
>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사람의 가감 금지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같은 금지의 반복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 30:6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지혜문학의 같은 원칙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18-19

성경 마지막의 가감 금지 경고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태복음 15:6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 사람의 말을 정경 자리에 두는 잘못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디모데후서 3:17

구약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충분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는 담지 않음(번역 문장이 모호함, 작가에게 참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3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과거형): 사도 세대의 증언으로 완결(번역본 표기 2:2, 내용상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정경(正經)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려고 주신 책 묶음, 곧 성경 66권의 목록이다.

정경성

어떤 책이 그 정경에 속하는 자격을 말한다.

사도성

사도가 썼거나 사도에게서 나와 사도의 보증을 받은 책이라는 기준이다.

영지주의

비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물질세계를 낮게 본 고대 이단 사상이다. 도마복음·유다복음이 이 계열이다.

자율적 추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 이성만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다(프레임 3장).

전제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깔고 들어가는 기본 확신이다.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명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밝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게 하시는 일이다.

자증(自證)
성경이 바깥의 더 높은 권위 없이, 성령의 증거와 함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개연적 논증
'확실하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까지만 말할 수 있는 논증이다.

구속사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일하신 큰 흐름이다.

일반계시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다. 정경이 닫혀도 계속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정경은 하나님이 최고 권위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려는 뜻에서 나온 필연이다.
- 하나님은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신다. 구약은 성막·성전에, 신약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에.
- 교회가 정경을 알아본 최종 근거는 사도성 같은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초자연적 확신이다. 그래서 정경이 교회 권위보다 앞선다.
-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이므로 정경은 닫혔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0편 · 66권은 누가 정했나 · 정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